



MODERATOR OF THE 146TH GENERAL ASSEMBLY
The Rev. Daniel D. Scott, B.A., M.C.S., M.Div., D.Min.

March 2, 2022

캐나다 장로교회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2021년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는 한카 동부 노회와 한카 서부 노회의 2021년 청원서 제1항 및 2항에 응답하고자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한카 동부 및 서부 노회의 청원서에는 ‘소수인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침묵을 강요받거나 비방, 모욕, 인종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특별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 에포아와 (Samson Afoakwah) 목사, 피터 부시 (Peter Bush) 목사, 메리 폰틴 (Mary Fontaine) 목사, 스티븐 권 (Stephen Kwon) 목사, 김 준기 (Joon Ki Kim) 목사, 린다 박 (Linda Park) 목사, 프랭크 자트마리 (Frank Szatmari) 목사, 이 승호 (Sean Seung ho Lee) 목사 및 2021년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임명된 댄 스캇 (Dan Scott) 목사입니다. 특별 위원회는 청원서를 제출한 한카 동부 노회와 한카 서부 노회에서 각기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노회 관계자들 및 노회에 속한 지역 교회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위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특별 위원회에 알리고자 하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줌 (Zoom) 모임을 가졌으며 서면으로 제출된 사례들도 주의 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청취의 기회를 통해, 특별 위원회 위원들은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따뜻한 환대가 나누어진 사례들과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이들이 소외당하거나 모욕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특별 위원회는 ‘2022년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 위와 같은 고통을 겪은 분들에 대한 목회적 응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목회 서신의 발송은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로 전해지게 될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에 앞선, 중간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신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데, 왜 내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한 참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특별 위원회의 위원들은 캐나다 장로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초래한 아픔 및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 교단으로서 초래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들려 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대한 증언은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현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Clerks of Assembly: The Rev. Stephen Kendall and The Rev. Donald Muir

내의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과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다 함께 경청하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산 믿음”(Living Faith)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안의 그릇된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결함이 있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폭력과 태만과 불의의 일부분입니다.”

성경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속한 이들이 각기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통해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7:9)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서 나아 온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의식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시하며 홀대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거부당하고 신뢰가 무너지며, 두려움과 절망감이 자라는 아픔’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부당하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하였을 때, 그러한 환대를 받는 이들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무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우리와 같아지게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의도를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

소수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말과 행동을 교회 안팎에서 목격했을 때, 그러한 잘못을 범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을 방면하였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 사람들을 옹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한 일들 또한 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소외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의 공범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 하에 형성되는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문화적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화적 편견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사, 우리의 편견이 주님의 몸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교회의 절차에 있어, 캐나다 장로교회 내 다문화적 현실에 기인한 다른 의사결정 방식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할 때, 교회 내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교회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아픔을 겪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는 사례들에 대해 숙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오만함으로 인해 여러 다양한 문화권 내의 형제 자매들의 지혜와 식견을 경청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를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 타문화의 그것에 비해 복음의 근본 정신에 더 가깝다고 단언하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변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타문화적 특성을 통해 표현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거임에도 우리의 문화적 자만심으로 인해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이를 의혹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통해 알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이나 언어권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장로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통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한 공동체가 아니다’고 말하는 죄와, 그 문화적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변화되게 하시어 여러 다른 문화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선한 은사를 겸손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와 각 지역 교회, 각 노회 및 대회, 총회를 비롯한 모든 교단 업무공간과 신학교를 새롭게 빚으시어,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더욱 닦아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발 아래 무릎꿇어 회개함으로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가했던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교회 안에서

소망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이 임하셔서 우리의 교만과 편견이 소멸되게 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모두 품고 나아와 삼위 일체 되신 은혜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올려 드리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낮은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총회장 댄 스캇

특별 위원회 공동위원장 린다 박, 피터 부시

special.committee.pcc@gmail.com